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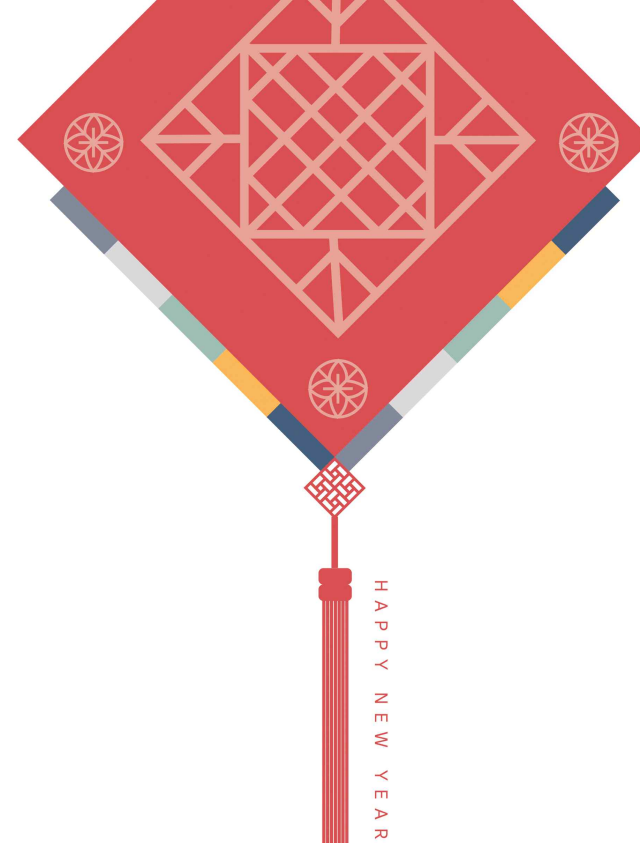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가 550장

- 1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오네
- 2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 3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 4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찬송가 478장

- 1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 2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해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 3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 하도다 아멘



2023 설 가정예배 순서지

| 행복하고 복된 설날 되세요 |





예 배 순 서

예배로의 부름

잠언 3:5-6

인 도 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함 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시온의 영광이 (550장)

다 함 께

기 도

가 족 중

성경봉독

이사야 43:18-21

가 족 중

18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만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20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설 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인 도 자

찬 송

참 아름다워라 (478장)

다 함 께

마침기도

인 도 자

평화와 축복의 인사

다 함 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시간’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만물의 ‘시간과 공간’의 창조주이십니다.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 우리는 작년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시간 안에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옛것을 잊고 새날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며 과거의 잘못과 우리의 과오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더욱 풍요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땅을 향하면서 홍해의 기억을 경험했지만, 실질적인 광야생활에 직면하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쓴물을 경험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고치시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엘림’이라는 귀한 오아시스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섭리는 인간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올 때 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숭배라는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귀한 것을 준비하시고, 그들의 길을 예비하시며, 그들의 새 삶을 계획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불신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 언제나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으로 계속하여 나아가도록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며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옛날 일의 아픔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하심을 신뢰하고 기대함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물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것을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올 한 해가 되며 또한 우리 평생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